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9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흑서를 피하려고 시원한 그늘을 찾듯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을 바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깊고깊은 심연과도 같은 주님의 공평하심, 우람한 산줄기와 같은 주님의 의로우심,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못난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이 열어주신 영적 자유의 세계를 맘껏 노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의심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듯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 평화를 이룩하는 새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36:6-7	인도자
♠ 교 독 문	12. 시편 32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건호 선생 II. 이용한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79. 내가 깊은 곳에서	다함께
성경봉독	I. 대상4:9-10, 막14:35-36	다함께
	II. 마6:5-8	김명순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야베스에서 예수로	김기석 목사
	II. 기도는 새 삶의 입구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07.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 발 앞에 놓인 걸림돌은 치워주고, 지친 이들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떠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삶이 아무리 힘겹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 삼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주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3남선교회 주최예배	전교인 수양회
말씀: 김동환 목사	향심(向心) 기도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박애순 집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길	박범희	이순정	박옥순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이인웅	김중수	김애경	구명자	김명순

침묵의 가치

▶ 하나님의 말씀: 천둥과 침묵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보다 앞서 들려왔습니다(출19장). 수세기가 지난 후 선지자 엘리야는 똑같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폭풍과 지진과 불을 경험했으며, 그는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친숙하고도 강력한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난 후 엘리야는 “침묵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왕상19장)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말하십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시내산에 모였던 사람들의 예를 취해야 할까요, 엘리야의 예를 취해야 할까요? 이것은 어쩌면 잘못된 양자택일일 겁니다. 십계명의 수여와 관련된 무서운 현상은 그 계명들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거나 거절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차 바퀴 속으로 곧장 뛰어드는 어린아이를 본다면 가급적이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귀에 또렷이 들리도록 합니다.

크게 선포된 말씀도 틀림없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것은 매우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지는 못함을 잘 압니다. 그런 말씀들은 환영받기보다는 우리 속에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인가요? 하나님은 “침묵의 소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의 소리”가 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내산 위에 불어닥친 강한 폭풍은 바위를 깨뜨렸지만, 침묵의 말씀은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제칩니다. 엘리야에게는 폭풍이나 천둥보다 하나님의 갑작스런 침묵이 훨씬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력한 현시는 그에게 다소나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가 이전에 알던 것과는 매우 다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가능케 합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숨겨진 장소에까지 울릴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함이 입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는 일을 그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까지 미치고 또 그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다 침묵 속에서입니다.

▶ 침묵과 사랑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15:12). 우리는 이 말씀을 환영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당황하고 변민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또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이유와 논거를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면, 그런 이유들은 실상은 별 것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을 회피하고, 소음과 말들과 심란함 속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내적인 평화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쓸쓸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신랄함을 해체하면서 우리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침묵과 가난 속에서 우리 영혼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무제약적인 사랑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침묵은 사랑에 이르는 겸허하면서도 안전한 길입니다.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정현중)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어딘가에 우산을 놓고 오는 일이 종종 있다. 버스와 전철에도 놓고 내리고, 공중전화부스에도 놓고 나오고, 가게에 들렀다가 물건만 들고 오고, 어디에다 두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고,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런데 왜 우리는 어디 우산 놓고 오듯 나를 놓고 오지는 못하는 것일까?

꼬박꼬박 챙겨 왜 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

내가 나로부터 서너 걸음 물러서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때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왜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설 때, 조용한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돌아설 때, 어디 우산 놓고 오듯 그렇게 나를 거기 놓고 돌아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늘과 사랑과 자유를 그렇게 누리보기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이용한 오성희 김인걸 문영혜 김훈동 유경순 조관행
 홍선희 안종일 정현주 박규석 박경선 박성수 김애경 김용길 최영혜
 이봉옥 배상순 이은옥 박영희 박시내 박정숙 정복순 고광승 이춘희
 조병무 송양진 박재실 김용원 최인환 임승동 백혜숙 임고운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조항범 오현정 윤성종 김윤정 황경순 왕수명 박범희
 이희균 김영한 고숙이 유혜경 임 영 정경례 최성애 하현철

감사헌금:

홍순구 안홍숙 문금석 오진훈 노순옥 김성환 김종숙 김용진 박효선
 김현진 이병철 방현복 이용한 이정은 김경학 김홍기 김상태 고재중
 이용구 한선희 무명3

생일감사헌금: 임고운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침	침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제3남선교회 주최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영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동환 목사님이십니다.
2. **수양회** :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양회가 내일(8월 2일)부터 5일까지 충주 제일교회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우들과 새롭게 만나고, 마음에 고요를 모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3. **봉사** : 애니아의 집 목욕봉사 — 8월 6일(금) 오후 12시 40분
중묘급식봉사는 8월 11일에 있습니다.
4. **도서관 휴관** : 교회 수양회 관계로 8월 2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동안 휴관합니다.
5. **장례**: 백혜숙 권사 모친 고 윤운숙 권사의 장례가 31일 있었습니다.
6. **신앙실천** : 넘쳐나는 쓰레기로 휴가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